

영화 분석 방법론 관한 연구

A Study on Film Analysis Methodology

황진희*, 이승연**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Jin-hee Hwang*, Seungyon-Seny Le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

요약

본 논문은 연대기적 흐름에 따른 영화 이론의 발전 양상을 통해 영화의 분석 방법과 관점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영화는 고전과 현대를 명확히 나누기는 모호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분류할 수 있다. 영화 초기에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현대로 가면서 점차 고전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와 형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영화와 그 이론 또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영화의 유형은 고전 영화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실험영화로서의 다양한 형태와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 이론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으며 그것이 현대 영화를 분석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고찰한다.

I. 서론

영화 이론은 문학, 심리학, 기호학, 정신분석학 등 여러 관점에서 다른 학문과 결합하여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종합예술이다. 관점 또한 사회적, 경제적이기 보다는 예술적, 미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달하여 영화의 구성과 작용에 관한 이론이 연구되었다. 또한 시대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여 영화 제작에 있어 작가의 생각과 표현이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현상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데 경제공황,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의 사건들이 영화에도 영향을 받아 기술적으로나 내러티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직·간접적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작가들이 사회적 현상을 영화에 반영한 생각과 기술의 형태를 분석하여 도출되는 패턴과 형식은 현대 영화 제작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전영화와 현대영화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경향의 발전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양상이 현대영화의 영화 분석에 있어 적용해야 할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영화를 미학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장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화의 유형을 크게 현실을 재현하려는 영화, 현실을 표현하려는 영화, 형식과 구조를 확립하려는 영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감독의 성향이나, 관객의 성향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 공통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영화의 특징을 재정리해보고자 한다.

1. 현실을 재현하려는 영화

초기 영화가 탄생했을 때 영화는 현실에 비취지는 물체나 환경, 움직임은 스크린에 재현하는 형태의 리얼리즘 예술이었다. 때문에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을 위하여 비전문 배우나 자연스러운 조명 그리고 많은 편집을 거치지 않는 롱테이크(long take)와 롱샷(long shot)을 사용하는 등 꾸미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었다.[1] 또한 1930년대 러시아 스탈린 정부의 주도로 발전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 이론은 현실세계를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다큐멘터리로서의 영화가 나타났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네오리얼리즘(neorealism)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탈리아의 피폐해진 사회의 현실과 민중의 일상적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로 탄생하게 되었다.[2] 고전시대에서도 현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기술적 노력을 하였지만 네오리얼리즘 역시 자연스럽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로케이션 촬영과 즉흥적 연출, 비전문 배우의 출현, 동시녹음 등의 시도를 하였다.

이처럼 고전시대의 리얼리즘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네오리얼리즘은 현실을 반영하고 기록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다큐멘터리와 같은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현실을 표현하려는 영화

제 1차 세계대전은 사회적으로는 혼란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피해를 많이 본 독일은 더욱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영화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영화는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조명이나 미장센을 강조하였으며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시점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The Cabinet of Dr. Caligari)》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당시 독일인들의 억압되고 불안한 심리를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유대인의 학살과 제2차 세계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감독들은 미국으로 이주해갔는데 그 곳에서 제작한 영화들은 필름 느와르(Film noir)형태로 나타났다. 즉 불안함과 억눌림의 심리상태를 영화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리얼리즘과 마찬가지로 야외촬영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들어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조명, 세트, 카메라 앵글 등이 사용되었으며 심리학의 영향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메타포 형식과 시점의 활용 등은 사회적 현상과 인간의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에 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영화의 형식과 구조를 확립하려는 영화

영화 초기에는 현실을 기록하는 영화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편집 기술과 스토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elies)의 《달세계 여행(A Trip to the Moon)》은 연속 편집 스타일과 스토리가 있는 영화로 그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을 기술적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확립시킨 에이젠슈테인(Sergei Eisenstein)의 몽타주기법은 과학적이고 분석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형식을 중시한 영화는 현실 세계를 미학적으로 재구성하며 시청각 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기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는 월남전 반대시위, 민권운동, 히피(Hippie)문화 등이 전개된 시기이다. 역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영화가 등장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네오리얼리즘과는 달리 기존의 관습에 저항하려는 경향의 실험적 독립영화운동이 일어난다. 현실을 반영하지만 카메라의 위치, 조명, 프레임 등의 기술적 요소는 사실성보다는 우연성이 강조된다. 또한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연구가 영화 이론에 적용되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구조주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즉 신화의 내러티브를 분석했던 접근 방식이 영화에도 적용된다고 봄으로서 영화 이론 또한 문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로써 영화 연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의 스토리와 편집 형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은 영화를 텍스트적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게 된 틀을 마련하였다.

III. 결론

고전에서 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 이론가들과 감독들의 연구와 제작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되어 영화 이론 틀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영화를 분석함에 있어 그 이론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제 2차 세계전쟁 전과 후로 나타나는 영화 흐름의 발전과 양상의 공통적 특징을 크게 세 부류로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리얼리즘 영화, 표현주의 영화, 형식주의·구조주의 영화로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큰 틀에서 이미지, 내러티브, 텍스트, 정신분석적으로 영화를 분석해야 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먼저 영화는 현실적으로나 비현실적으로나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 이미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텍스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화의 형식을 자유롭게 한다. 다음으로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플롯과 내러티브의 구성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영화를 문학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데 특히 현대 영화로 갈수록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를 반영한 영화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학문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이 영화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많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해진 정신적 증상이나 심리상태를 분석할 때에는 필요한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영화의 특징을 통해 분류되는 유형이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한 것이 한계점일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도출된 이미지, 내러티브, 텍스트, 정신분석 관점은 영화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요소를 나눈다면 영화 분석이 체계화 될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1] 이영기, 최광열, 영화사전, pp. 107-108, 한나래, 서울, 2012.
- [2] 정현, 영화 역사와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13.
- [3] 이용관,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제3문화사, 서울, 1991.
- [4] 김길훈, 김덕수, 김건, 현대영화이론, pp. 107-108, 한국문화사, 서울, 2012.